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4.10원 상승한 1,201.00원에 마감

6일 환율은 전일대비 4.10원 상승한 1,201.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00원 상승한 1,200.90원에 개장했다. 글로벌 달러 강세에 상승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상승 폭을 확대하며 1,201.40원까지 고점을 확대하였으나 네고 물량 유입과 레벨 부담에 상승 폭을 축소하였다. 이후 1,190원대 후반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오후 들어 달러-위안 환율이 상승하고 코스피지수가 하락하자 이에 연동으로 상승 폭을 확대하며 전일대비 4.10원 상승한 1,201.00원에 마감하였다. 장중 변동 폭은 4.3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36.51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00.90	1201.40	1197.10	1201.00	1199.6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33.98	1038.31	1031.84	1037.30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53.80	1360.93	1353.21	1355.93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28	1.44	2.49	3.23
결제환율(수입)	0.81	2.49	4.05	5.71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美 국채금리 상승세 연장에...1,20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8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01.00원) 대비 4.05원 상승한 1,205.85원에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 강세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더 잘 통제하기 위해 3월 금리 인상과 완만한 양적 긴축을 정책 정상화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준의 긴축 스탠스 강화에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장중 1.75%에 근접하며 시장의 불안을 자극했다. 이에 달러화 강세 모멘텀이 지지되며 금일 환율은 상승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출업체 네고 물량과 당국의 미세조정 경계는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00.00 ~ 1209.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811.6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05원 ↑
	■ 美 다우지수 : 36236.47, -170.64p(-0.47%)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7.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39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